방탄소년단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7' 공개 첫 날 265만장 판매

'91개국 1위'…언어·국적·인종 초월한 BTS

〈아이튠즈 톱 앨범 23일 오후 1시〉

美·英 차트 줄세우기 역대급 흥행
유력지 인터뷰·인기 토크쇼 출연
빌보드 200 네번째 1위 시간문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을 21일 공개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기세가 무섭다. 23일 오후 세계 91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차트를 휩쓸고 있다. 이들은 통산 네 번째 빌보드 차트 정상도 노리고 있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가히 역대급!" 예상은 했지만, 폭발력은 이를 뛰어넘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새 앨범 발표와 동시에 흥행 신기록으로 또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의 비교적 긴 공백을 끝내고 새롭게 "BTS의 쇼타임!"을 펼치고 있다. 21일 선보인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L:7)'을 통해 언어와 국적, 인종을 초월해 위상을 굳혀가는 것이 색다른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3월2일(한국시간) 발표하는 미국 빌보드 200차트 1위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265만장 판매고·91개국 아이튠즈 1위

'맵 오브 더 솔:7'은 23일 오후 1시 기준 전 세계 91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휩쓸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사우디라이비아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타이틀곡 '온(ON)'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83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아예 '차트 줄 세우기' 현상도 벌어졌다. 현지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필터', '라우더 댄 밤즈', '위 아 불릿프루프 : 디 이터널', '친구' 등 4집 수록곡이 10위까지 순서대로 차지했다. 국내 주요 음원차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차트 줄 세우기'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온'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공개 당일 1시간 만에 12만3489명의 이용자수로 2017년 2월 차트 개편 이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앨범 판매량 역시 '역대급'이다. 음반 판매량 집계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맵 오브 더 솔:7'은 21일에만 265만3050장이 판매됐다. 지난해 4월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MAP OF THE SOUL:PERSONA)'로 발표 일주일 동안 213만 장을 판매했던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미 앨범 발표 전 선 주문량 410만 장을 돌파하면서 흥행 기록을 예고한 바 있다.

●다시 빌보드로

방탄소년단은 이 같은 성과로 또 다시 빌보드 차트 정상을 노리고 있다. 앞서 2017년 '러브 유어셀프:티어(LOVE YOURSELF:Tear)', 2018년 '러브 유어셀프:앤서(LOVE YOURSELF:Answer)' 그리고 지난해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로 연속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새롭게 1위에 오르면 통산 네 번째이다.

전망은 밝다. 이들은 새 앨범을 발표하며 미국의 유력 매체들과 잇단 인터뷰를 가졌다. 21일 미 NBC 유명 토크쇼 '투데이쇼'는 이들을 출연시키며 "전 세계 음악시장을 점령했다"고 소개했다. 'MTV 프레시 아웃'도 이들의 글로벌 인기가 "세계적 현상"이라며 새로운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음악은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뛰어 넘는다"면서 팬덤과 끊임없는 소통을 힘으로 꼽았다.

'맵 오브 더 솔:7'은 전작인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를 잇는 앨범으로, '7'은 "일곱 멤버이자 한 팀으로 모인 방탄소년단의 데뷔 7년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밝혔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와 그동안 숨겨왔던 내면의 그림자, '외면하고 싶은 나'를 모두 받아들이고 '온전한 나'를 찾은 방탄소년단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온'은 데뷔 이후 7년의 시간을 보내며 아티스트로서 가진 소명의식과 마음가짐을 담았다고 소속사 측은 밝혔다. 그만큼 팬들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겼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팬덤의 힘으로 '온'도 이들의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의 최고 성적인 8위(작은 것들을 위한 시, 2019년)를 뛰어넘을지 주목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전 세계 18개 도시 38회 공연에 나선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생충 신드롬'이 낳은 불법 출판물 어쩌나

제작사, 저작권 위반 대응 방안 고민
美선 트럼프 대통령 공개 비난 논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신드롬급 폭발적 열기 만큼이나 잡음 섞인 후폭풍을 겪고 있다. 해외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정치적인 논쟁을 촉발했고, 국내에서는 영화 제작진의 저작권 등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창작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선 유세에 한창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한국시간)과 22일 유세에서 연이어 '기생충'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련해 '기생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한국)은 무역에서 우리를 때리고, 빌어먹을(freaking)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탔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맹공은 '기생충'이 한국어로 된 외국어영화인 데다 최근 '반 트럼프' 지향을 공고히 하는 미국 아카데미상을 겨냥한 비판이란 해석을 얻고 있다. CNN 등 외신들도 이를 비중 있게 보도하는 가운데 '기생충'의 북미 배급사인 네온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발언은)이해할 만하다"며 "그는 읽을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인 "1인치의 장벽"으로 대표되는, 외국문화의 수용 외침을 빗대 트럼프를 저격한 글이다. 가수 겸 배우 베트 미들러도 "백악관에 기생충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썼다.

영화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미에서 흥행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1일 기준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북미에서 4541만 달러(약 550억원)의 매출을 기록, 역대 외국어영화 흥행 4위에 올랐다. 이에 힘입어 네온은 봉 감독과 송강호가 처음 만난 '살인의 추억'의 북미 재개봉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기생충'이나 봉준호 감독과 관련한 불법 출판물이 늘어나 영화 제작진이 골치를 썩고 있다. 봉 감독과 '기생충' 성과를 엮은 '위인전' 스타일의 어린이 도서가 영화 제작진 동의 없이 이미 예약판매까지 시작했다. 이미 정치권의 '기생충' 관련 공약 및 마케팅에 자주 언급돼 난처함을 호소했던 제작진은 최근 관련 출판물이 저작권 동의 없이 범람하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작자 곽신애 바른손 E&A 대표는 '기생충' 관련 공식 출판물은 각본·스토리보드북이 유일하다면서 불법 출판물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3

변정수, 손소독제 판매 광고글 논란

모델 출신 변정수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손소독제 판매 광고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변정수는 23일 SNS에 "어젯밤 다들 너무 불안해하셔서 재오픈합니다. 수량 준비 2월25일 아침 8시에 할게요"라는 글과 함께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안내 사진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 비판이 나오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편 배우 이영애와 김고은, 방송인 김태균 등이 코로나19 확진가가 급증한 대구 지역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크레용팝 출신 금미, 비공개 결혼식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금미(32)가 23일 결혼했다. 금미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동갑내기 사업가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금미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임신 사실도 공개했다. 금미는 2012년 크레용팝으로 데뷔해 노래 '빠빠빠'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본명인 '백보람'으로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큐브엔터, 브이티지엠피에 인수

그룹 비투비, 펜타곤, (여자)아이들 등이 소속된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상장사 브이티지엠피에 인수된다. 브이티지엠피는 21일 3월26일 기존 큐브의 최대주주였던 코스닥 상장사 IHQ로부터 지분 30.61%를 291억 원에 넘겨받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브이티지엠피는 자회사 미디어커머스 플랫폼 업체 케이블리를 통해 한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에듀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법

교육기관 선택, 검증된 '합격자 수' 따지세요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임대차·교환 등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 연령에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꼭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 취업 및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활용할 수 있어 취득 열기가 뜨겁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은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합격자 수'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했다.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으로 중요한 이유는 많은 합격자를 가진 교육기관일수록 다양한 합격 사례와 빅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인맥과 정보가 중요한 직업인만큼 사후관리를 제공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은 지난 14일 '단일 교육기관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공식 인증받았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번째로 공식 인증 받은 쾌거다.

KRI한국기록원 기록검증서비스팀은 이번 인증을 위해 '에듀윌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사 수험생의 합격증과 합격자의 DB', '큐넷의 합격자 수험번호 대조', '변호사 등 신뢰할만한 제3자의 확인서', '기록도전 개요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에듀윌 박명규 대표이사는 "KRI 한국기록원에서 '합격자 수 최고 기록'을 3번이나 공식 인증받아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에듀윌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2		4		6		8	
7		6				4		1
	4			3			6	
3				9				8
		9	8		3	6		
6				1				3
	9			8			2	
2		5				8		7
	3		2		9		1	

6			2			5		9
	1	5					8	
9				4	3		1	
		8		2				5
		1	3		8	4		
2				1		3		
	6		7	9				1
	2					6	4	
1		7			2			3

■ 스도쿠정답

1	2	3	4	5	6	7	8	9
7	5	6	9	2	8	4	3	1
9	4	8	1	3	7	2	6	5
3	7	2	6	9	4	1	5	8
5	1	9	8	7	3	6	4	2
6	8	4	5	1	2	9	7	3
4	9	1	7	8	5	3	2	6
2	6	5	3	4	1	8	9	7
8	3	7	2	6	9	5	1	4

6	7	4	2	8	1	5	3	9
3	1	5	6	7	9	2	8	4
9	8	2	5	4	3	7	1	6
4	3	8	6	2	9	1	7	5
7	9	1	3	5	8	4	6	2
2	5	6	4	1	7	3	9	8
5	6	3	7	9	4	8	2	1
8	2	9	1	3	5	6	4	7
1	4	7	8	9	2	6	5	3